

연중 제7주일

기도서 P. 355 C해  
 제1독서(사무전 26, 27-9.  
 12-13, 22-23)  
 제2독서(고린전 15, 45-49)  
 복음(루카 6, 27-38)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장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 강 톤



## 최초의 유혹

### 정 승 련 신부

계세마니 등산에서 받으신 유혹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은 예수님의 최초의 유혹이다. 사실 이 최초의 유혹은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당하신 일생 동안의 무수한 유혹을 간결하고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1~2절).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은 성령의 인도, 즉 하느님(의 영)의 뜻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유혹은 성령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이다. 인간은 시련이 없이는 한 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음이 역사적인 교훈이며, 실존적인 정황이다.

첫째, 유혹은 욕수에 대한 유혹이다. 인간이 당하는 유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다. 욕구명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가족의 욕수를 부지하기 위해 튀다 보면 이를 미끼삼아 떨어오는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를 물리치는 길,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에 끝까지 충실하는 길 뿐이다.

둘째, 유혹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다. 이 유혹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아니면 사회의 유명 인사들만 당하는 유혹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유혹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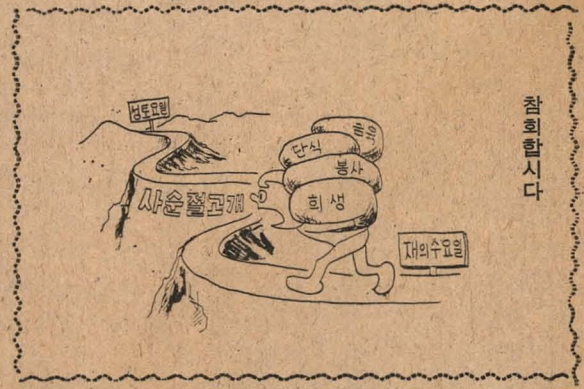
이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길은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진리에 끝까지 머무르는 길 뿐이다. 이 길만이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오직 한 하느님을 섬기는 자(monotheist)의 길이다.

셋째, 유혹은 자기 표현에 대한 유혹이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이 유혹은 남자만 당하는 유혹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당하는 유혹이다. 이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때리지 말라는 계명에 충실하는 길 뿐이다.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모두가 받는 유혹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자기 표현 욕—이 세 가지 기본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욕구이다. 다만 올바르게 채워지지 않으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욕구들이다. 이를 올바르게 채우는 길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길 뿐이다. 이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균중 신부)



## 숲 정이 산책



참회합시다



# 「사랑의 문명(文明)」을 건설하자

...마음의 회개와 사랑의 나눔은 우리를 참다운 해방의 길로 인도해...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

마음의 회개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가장 소외된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사람들, 조국을 떠나야 하는 피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나눔입니다.  
사순절 나눔의 운동—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증거치 못하는 이 시대의 분쟁과 불의와 환멸에 젖어있는 현대 세계의 치유를 통해 여러분은 참다운 해방의 길로 들어 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 역대 교황들은 모든 선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준비하도록 설정된 이 시기를 올바르게 지낼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참회의 정신과 실천은 불필요한 재물에 대한 집착, 나아가서는 필요한 재물에의 집착까지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대로 재물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 권력 또는 남 위에 교묘히 군림하려는 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활의 해방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재물에 얽매인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부활의 은총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물질적 재화가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밖에도 수억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온전한 인간 발전과 자국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겠다는 구호나 조그만 자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결코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개인 것입니다. 즉,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해 온 어린이, 젊은이, 남녀 성인들, 또한 조상대대로 살던 정든 땅을 버리고 조국을 떠나야 하는 수많은 피난민들과 가진 바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키 위하여 받으신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나눔, 즉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나눔은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며 우리 모두가 색어 없애지지 않을 부

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받을 사람”(로마 8:17)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교님들이 사순절 기간동안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순절 나눔의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호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사순절 나눔의 운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은 참다운 해방의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노력과 함께 여러분의 노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증거치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분쟁과 불의와 환멸에 젖어있는 현대세계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도 갈망하는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 단상 ⑥

### 人生은 有限하다

최 규 환(알베르토)

인생은 유한하다. 유한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요, 죽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생의 활동도 유한하다. 인간이 행동을 할 때에는 못미치거나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가리켜 중용(中庸)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도(度)에 넘게 많이 먹는다면 안먹는 것만 못하다. 내일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꼬박 밤을 세웠다면 도리어 시험에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있는 한도를 알아 잘 지켜야 한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에는 한도가 있다. 이 한도는 서로의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다. 조화는 우주의 원리이다. 조화의 원리가 허물어졌다면 우주의 원리가 파멸된다. 그리하여 인간사회는 파멸에 이른다. 분수를 알아 행동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태인본당 사도회장)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⑥ 0921

범 띠도(택배)·이 마리아

##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칠면조가 가축, 농업,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조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판면 죽림리 내정부락

칠면조 사육장 요 식



## 누가 챔피언이냐?

—하느님인가, 텔레비전인가?

김 병 엽 신부

텔레비전이 농촌에서의 오락물로 높은(80%) 시청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때였다. —그 본당은 농촌본당이기에 때문에 저녁미사 시간이 오후 8시30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서려던 때였다. 부인들이 몰려와 미사 시간을 30분만 늦춰달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영문을 알 길이 없다. 그때 오고간 대화인 즉 이렇다.

“신부님, 미사를 30분만 늦게 시작하시죠.” —“왜 그러시죠?” “다름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옥녀(玉女)가 죽는 판예요.” —“옥녀라뇨. 옥녀가 누구예요?” “신부님, 텔레비전 이야기예요.” —얼핏 머리를 스치는게 있다. 옥녀가 인기있는 프로라는 것과 옥녀가 인기를 끈 뒤로 미사참례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뒷통수를 쳤다. 「텔레비전이 마귀」라고 탄식을 하던 회장님들의 말씀도 생각이 난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미사시간을 늦출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킬 것인가? 텔레비전의 시청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다. 문화의 혜택이 거의 없는 산골이니까. 그렇다고 오락물 때문에 하느님이 멀리케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래서 5분간 생각할 여유를 얻어냈다. —하느님이나,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에 빠져서 미사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면 텔레비전도 보고 미사참례도 하면 되겠지...

잠시후 마을에 설치된 확성기는 미사시간이 30분간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조그마한 마을의 함성이 성당 마당을 울렸다. 미사를 마치고 옥녀가 죽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꼭 죽을 것 같더니 아직 안죽었다. 아마 내일 저녁이면 죽을 것만 같다.

사제관에 와서 생각해 보았다. 텔레비전의 황금시간과 미사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를. 용케도 주일 저녁미사 시간에는 권투의 세계 타이틀전이 열린다. 가깝게만 봐야 보아도 박찬희와 김태식이의 경기시간이 바로 그러했다.

주일 저녁미사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 청년들은 밤시간을 좋아한다. 그래서 심야의 방송 프로그램도 청년들을 위해 제작되는것 같다.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책도 보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는 늦잠을 잔다. 또 낮시간에 성당을 찾기가 어려운지 밤시간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챔피언 타이틀(戰)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인 청년들인지라 주일 미사도 안중에 없다. 통계를 내보았더니 70~80명의 숫자가 된다. 그런날이면 저녁 미사 봉헌금도 3~4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다보면 재경부장은 또 그 나름대로 걱정이 생긴다.

스크린 앞에 앉아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 문제는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와 닿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게 재미있는 프로가 있는 밤이면 낮시간에 하느님을 만나 뵈자. 텔레비전 보듯이 신공(기도) 드리면 모두가 성인성녀될 것이라는 어떤 공소회장님의 탄식이 컷가에 쟁쟁하다. (전동본당 주임신부)

## 요심이 (343) 기병우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점 열)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발지거)

☎ 2-3301 (차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료

## 문화양행

오 증 원(아오스님)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②0369)

□정화 미술학원 학생모집 □

## 윤경미장원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 (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 가톨릭 방송안내 및 원고모집

### 1. 사색의 오솔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2시 15분
- ② 담당 : 나중렬 신부
- ③ 원고내용 : 젊은이들의 생활교향과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 전주 노송동성당

###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 전주교구청
-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성가지도자 교육...2월 25일(월) 오후 2시~26일, 가톨릭 센터에서
    - 참가대상...각 본당 성가지도자, 반주자, 수녀(각 본당 2명 이상 참석 바랍니다)
    - 접수시간...22일 오후 1시30분~2시(※ 2시 정각에 시작)
    - 1인당 참가비...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시내(3천5백원), 금산·무주·장제·장수·한들(2천5백원) 순창·원평(2천원), 기타(3천원)
  - 본당 부녀회장 피정...28일(목) 오후 2시~29일, 가톨릭 센터에서
    - 접수시간, 1인당 참가비는 성가지도자 교육과 같음. 참가대상-본당 부녀회장 및 대표(각 2명 이상)
  - 제 2지구 회의...25일(월) 오전 10시30분, 문물동 성당에서, 참가대상-신부님, 사도회장단
  - 제 21대 4지구 중·고등학생 정기총회...3월 1일(토) 오전 10시30분 중앙성당에서, ※ 각 본당 신·구회장단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성도 기사회 모임...3월 1일(토) 오후 2시, 파티마 성당에서
  - 베델성서 연구 제 1회 수료식(51명)...25일 오후 6시, 수강생의 참석을 바랍니다
- 문학강좌...15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김원기 선생(강원일보 논설위원), 주제-문학과 정치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협
보좌	신부	성	태	수
보좌	신부	정	태	협
사도	회장	김	김	부

지참물-성서·기도서·성가책·묵주, 회비-1,000원 식사 제공

□ 지난주 불헌금: 372,870원  
구정활동 위령미사: 323,000원  
출판물 보급주일 헌금: 41,740원

- 인후동 가정방문 실시 예정: 3월 4일(화) 오후 2시
  - 사순절 신임강좌: 23일(토) 오후 8시, 주제-신앙관
  - 제 21대 임원 교체식(중·고등학생) 일시: 2월 24일 학생미사 후 교리실. 신·구 의장 및 임원 꼭 참석 바랍니다
  - 사제양성 후원기금 마련 저금통 사무실에서 가져가주세요
  - 십자가의 길(성로신공): 매주 <금> 저녁미사 후 어머니미사 전
  - 정년성가대 나합자촌 방문 26일(화) 오후 1시 성당 집합
  - 대학생 및 지도위원 모임: 24일(일) 오후 12시
- 지난주 불헌금: 438,723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일
사도	회장	박	준	근

- 본당 1일 피정: 오늘 오후 2시~9시까지 참가대상-20세에서, 65세 이하의 남녀 준비물-성경, 묵주, 성가집(저녁미사 본당 제공)
  - 제 2차 성령세미나 개최: 25일(월)~3월 1일(토)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사무실에 접수하세요)
  - 신용조합 정기총회: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합원님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기념품 증정)
  -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 레위기 전체
  -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 지난주 불헌금: 216,56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고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 진복회·부녀회 월례회: 오늘 미사후
  - 애령회에 성금 주신분: 전종근(3만원), 정경진·송영기·소병을·이성환(각 1만원), 진복회(1만5천원)
  - 전제안내: 금주 미사해설-유원식, 독서-① 김용환 ② 정경진, 신자들의 기도-송은숙·안춘기·한인수·전종근
  - 주일학교 교리반에 귀영동이를... 교리-2시, 미사-3시
  - 예비자 교리: 매주 일 11시,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짧은이 성가연습에 관심을 가지시다 매주 <토> 저녁미사 후
  - 반석회 모임 안내: 매월 2째주<토>
- 지난주 불헌금: 266,34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대학생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30분
- 주일학교 졸업식: 오늘 오후 2시-주일학교
- 복자 신용 협동조합 정기총회: 오늘 오전 11시
- 본당 피정 남자-3월 15일 오후 1시30분~16일 정오까지 여자-3월 17일 오후 1시30분~18일 12시까지 장소-본당, 강사-교구청에서 7분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철	수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상임위원, 감사, 교문 참석 요망)
- 중·고생 연수회: 2월 25일~27일까지 (부모님들은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울드레아 회합: 2월 26일 오후 8시 (푸르실리스타 전원 참석 요망)
- 애령회 기도: 공식미사 후
- 감사: 수녀원 비품 기증 최바울라(물건 6점), 구양례·김낙완·박갑례·손옥·손유준(각 금일봉)
- 성가 신용조합 정기총회: 2월 27일 14시 (조합원 도장가지고 필히 참석 바랍니다)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 재의 수요일 외부행사: 24일 주일
  - 사순절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오니 사순절동안 정성껏 모아 부활주일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귀영동이 졸업식: 23일
  - 요안나회 월례회: 24일 오후 8시
  - 누깁다 부녀회 월례회: 3월 1일
  - 침례회 및 성경연구: 오후 7시30분
  - 신축기금 내주신분: 최익수·박노순(각 10만원)
- 지난주 불헌금: 206,24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중

-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 주일학교 신입생 모집: 3월 2일 어린이미사때 입학식
  - 주일학교 자모회 예비모임: 24일 공식미사후 사제관
  - 80년도 교무금을 빨리 신임하십시오
  - 봉사분과 위원 명단: 이귀남(누시아), 이선정(수산나), 오정숙(아가다), 정현자(헤레나), 태복래(테레사), 유기남(테레사), 이영옥(안다)
  - 기우회 회합: 3월 1일 오전 10시 가입 희망자는 사무실에 연락바람
- 지난주 불헌금: 357,08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 십자가의 길: 사순절 기간동안 주일 공식미사 후
  - 사제양성 저금통 배부: 각 가정마다 1개씩 가져가세요
  - 고등학생 피정: 26일~27일(2일간)
  - 중·고등학생회: 오늘 3시미사 후
  - 부녀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사순절 불헌카드 작성: 성실한 불헌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84,680원 어린이헌금: 3,070원 교무금: 157,000원